

## 1965年度 公共圖書館의 回顧

曹 尙 鉉

(春川市立 圖書館長)

## 概 說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된後 그렇게도 목 마르게 기다리던 同法 施行令이 制定되었다. 氣盡脈盡 장마물에 휩쓸려 내려 가다가 한 가닥 새끼 오라기라도 잡은듯한 1965년의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카렌더>에 온갖 未練을 남기고, 圖書館人들의 몸부림치는 念願을 度外視 한채 저물어 간다.

우리는 果然 이해가 圖書館界의 前進과 向上을 爲한 해였나를 熟考할 機會를 가져, 다음 해에는 올바른 方向 設定위에 希望에 찬 韓國圖書館의 發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무릇 民主國家 建設에 있어 文明의 進歩라고 하는 것은 高度의 知識을 必要로 하는 學者로 부터 各種職業人을 包含하는 草童에 이르기 까지 ① 社會의 諸文化의 水準이 높은 水準에 到達하여야 하고 ② 社會의 모든 制度가 民主化 되어야 하고 ③ 個人의 生活이 經濟的으로 富饒해야 함은 再論을 要치 않는다.

여기 첫번째로, 文化의 水準이 곱고루 높아야 한다고言及한 것은 그만큼 民主主義制度는 國民全體의 知識을 源泉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國民生活에 있어서 知識을 媒介하는 社會教育의 母體인 公共圖書館이 우리나라에 設置되기 始作한것이 이미 半世紀라는 世月이 흘렀고 解放된지 20년이 지나갔다. 또한 圖書館의 近代의인 概念이 6·25以後에 導入되었다고 본다면 圖書館 教育을 하나의學問으로 大學에서 다루기 始作한것만도 10년이라는 時間이 흘렀다. 10년이란 짧은것 같지만 예로부터 10년이던 江山이 變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긴 歲月을 지나오는 동안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은 長足の 發展을 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國民生活과 直結되어 있는 公共圖書館만이 그 發展의 隊列속에서도 惟獨 뒤 떨어지고 있는 事實을 分析해 본다면, 勿論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것이나 結論부터 말해서 그 發展의 度가 너무도 큰 差異를 보여 주고 있음은 當局과 社會의 沒認識, 經濟的 貧困等을 指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責任을 남에게만 轉嫁시킬것이 아니라 公共圖書館人 스스로의 피와 땀이 몇배 더 必要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을 以前에도 그랬지만 公共圖書館界의 1965년도 또한 昨年 再昨年과 못지 않게 難關의 해였다. 1963年, 10月 28日에 圖書館法이 制定 되었고 母法이 公布된지 그로부터 17個月 만인 지난 3月 26日에 同法 施行令이 大統領令 第2086號로 制定 公布 되었으니 참으로 難産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韓國 圖書館界의 希望과 慶事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법이 制定 되었다고 해서 公共圖書館에 뭐 하나 이렇다 할 보탬이 되고 있는 일은 百에 한 가지 일도 없으니 果然 希望의 해였다고 할수 있을까!

館種別로 볼때 그 어느 圖書館 보다 法의 完全한 뒷받침이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 公共圖書館이다. 그러나 法의 內容을 보면 他館種의 것은 明白히 해놓고서 公共圖書館法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의 納本條項以外에 法이 없었던 때와 비하면 뭐 하나 새로운 點이 있는가? 一國에서 出版되는 모든 圖書를 中央圖書館에 모아 놓는다는 納本法도 따지고 보면 이미 10年 或은 20年前에 制定施行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특히 同法中

① 公共圖書館에 入館料를 받을수 있도록한 點.

② 教育機關에는 設置義務를 지워 놓고 公共圖書館의 境遇 同法 第7條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고 매우 微溫的인 態度로 슬쩍 넘어 갔다는 點.

③ 거기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罰則條項만을 지나치게 詳細히 規定한것 등은 公共圖書館의 概念을 바르게 나타내어 놓지 못한것이다. 또한 職員任用에 있어서 公務員 任用令에 準한다 해놓고 또다시 司書資格證 云云한 同法 施行令 第4條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公務員 任用令에 따라 職員을 任用했으면 끝난것이지 司書資格을 따로 規定해서 어찌자는 것인가? <司書>라는 낱말이 어떤 집 귀여운 개 이름처럼 한번 불러나 보자는 것인가?

公共圖書館人이면 누구나 한입을 모아 부르짖고 있는 所屬廳問題 하나 解決하지 못하는 그런 法을 가지고 名實共이 한 나라의 社會 教育을 하겠다는 것이可笑롭기 이를테 없다.

취 꼬리만한 人件費와 資料費, 1年 삼백 예순날 하루 最長 17時間씩을 勤務해도 特勤手當 하나 받지 못하고 職員兼 使喚兼 일해야하는 公共圖書館 職員, 教育廳과 市나 郡廳 사이를 붓다리를 메고 눈치 코치 脾胃를 마치면서 轉轉하는 장돌뱅이 身勢——하나 하나 列擧하자면 그 屈辱과 賤待란 限이 없다. 글로써 表現하지 못할 만큼의 難關과 惡條件을 當場 눈앞에 놓고서도 1965年度를, 圖書館法 施行令이 制定 되었다고 해서 덜어놓고 希望의 해였다고 敢이 斷定 지을수 있겠는가?

今年度 公共圖書館界의 收穫이라고 한다면, 去 1月 12日에 既成建物を 改築 開館한 建坪 120坪의 康津郡立圖書館이 新設되었고 같은달 27日에 新築移轉된 韓國 唯一의 建坪2,860坪의 5層 南山圖書館과, 8月31日에 新築落成된 3層 建物の 大田市立圖書館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總閱覽席數 1,490席의 南山圖書館의 新築은 韓國公共圖書館界에 發展이요 今年度の 큰 所得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施設이나 藏書의 未備로 그 本然의 機能을 찾자면 하루 이틀에 이룩될 일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리고 今年度 收穫으로 置簿하여 들것은 65年度에 策定執行된 資料費가 64年의 資料費 增加額 178,014원 보다 11배가 는(增) 總 11,158,600원의 冊을 사고 其他 資料를 사들이는데 쓰여 졌다는 事實은 크게 發展했다고 할만 하다.

**豫算·資料·運營**

今年度 公共圖書館의 增加現況은 1個館이 新設, 2個

館이 現代式 建物로 新築되었다.

閱覽席은 2,197席이 늘어 모두 8,909席을 確保하게 되었다.

藏書數는 37,627冊이 늘어 모두 729,525冊이다(同藏書增加數는 1965年 3月末現在 集計임)

豫算面을 보면 1964年 總豫算額 56,013,175원 보다 10,644,270원이 增額된 總 66,657,445원이 執行 되었는데 이를 지난 해의 豫算增加額과 比較해 보면 64年의 增加額이 17,595,516원이 었으니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表示된 今年度 豫算額은 一部 圖書館의 追更으로 더늘어 났을것이 豫想된다)

그중 資料費는 11,158,600원이 基本豫算에 計上執行되었는데 이는 64年 資料費보다 2,051,664원이 增加된 것으로 今年增加額 178,014원에 比하여 11倍 以上이 增額된것은 크게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資料費가 今年에 이程度 增加되어 가고 있다는것은 <배 보다 배꼽이 훨씬 컸던> 從前의 人件費에 對하여 자못 好못한 感이 있다. —法에서 規定한 公共圖書館 施設 基準에 基因된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以上 今年度에의 1個館의 增加·2個館의 新築開館·豫算의 增額(특히 資料費)은 그것이 人口自然增加와 物價變動 그리고 社會發展에 따르는 當然한 現狀이지 資料費가 늘고 大型 圖書館이 세워 졌다고 해서 이것을 갖이고 公共圖書館이 지난해 보다 크게 發展했다고 자랑 할만한 것은 못될것같다.

1964年과 今年度の 公共圖書館의 數와 資料·豫算·職員數等を 比較해 보면 아래 表와 같다.

1965年과 1964年의 公共圖書館現況比較

現況 年度別	圖書館數	閱覽席數	藏書數	資料費	總豫算	職員數
1965年	49	8,909	729,525	11,158,600	66,657,445	412
1964年	48	6,712	691,898	9,106,936	56,013,175	341
增加數	1	2,917	37,627	2,051,664	10,644,270	71

※ 藏書數는 65年 3月末 現在의 集計임

**奉仕**

社會發展에 있어서 새로운 知識의 創造는 그들과 質에 併行하여 그 發展의 度와 比例한다. 그래서 社會의 發展과 向上은 그것을 이룩하려는 過程 속에서 隨時로 새로운 變貌를 意味 한다. 이 變貌란 時代發展에 核을 이루는 知的文化 即 새로운 知識의 創造가 繼續 保存, 傳授되는 가운데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 特別 公共圖書館의 奉仕는 社會發展을 左右하는 直接的인 位置에서 向上되어 가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今年度 公共圖書館界의 이와 같이 貴重한 奉仕活動은 靜에서 動으로 轉換되어 가고 있는것같은 느낌이 있다. 그 外形의인 形態로 나타낸것은 圖書館및 讀書週間行事로써 몇個館이 實施한 移動文庫·巡迴文庫·家庭巡迴貸出等を 들수 있다. 이와 같은 活動은 于先 圖書館과의 距離가 먼 一般市民들의 認識을 높이는데 좋은 方法이 었고 손꼽을 만한 奉仕活動이 었다. 特別 春川市立圖書館에서 實施한 駐屯 軍部隊 將兵과 各職場 各 家庭에 洞과 班을 통하거나 圖書館職員이 直接 圖

책을配達해준 <家庭巡廻圖書貸出>活動은 市民과 讀書, 市民과 圖書館과의 멀어져 있는 사이를 좁혀준 奉仕活動의 하나였다.

또한 特記할것은 印刷 카드를 製作配付하여 各 圖書館이 分類·編目에 浪費하는 많은 時間을 奉仕業務에 돌렸으면 하는 意見이 擡頭되고 있다는 것이다. (1965, 11, 28, 南山圖書館에서 배운 公共圖書館 職員 懇談會 席上에서 論議) 이와 같은 傾向은 公共圖書館인들이 그 만큼 奉仕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다는 證據라 하겠다.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과 地方 一部圖書館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圖書相互貸借業務 라든가 目錄을 作成하지 못하고 있던 地方一部 圖書館에서 圖書館實務 講習을 履修한 職員에 依하여 K.D.C.로 圖書를 分類整理하고 있다는 消息은 무엇 보다도 公共圖書館 奉仕에 앞날이 밝다. 그리고 地方 某圖書館에서는 그 地方에서 發刊되는 江原日報 文化欄에 週一回 <新着圖書案内>를 서비스 하고 있음을 附記해 둔다.

### 參考業務

上記 奉仕에서 言及할 問題이나 그의 重要性으로 보아 따로 다룬다.

參考業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今年 들어 國立中央圖書館이 參考室을 設置하고 市民으로 부터의 質疑를 專擔하는 參考司書를 두고 있으며 <클리닝>과 <스크랩>等 <버티칼·화일>을 만들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그리고 今年 三月 閱覽室內에 (參考圖書와 定刊物을 함께 取扱) 參考室을 設置한 春川市立圖書館에서 郷土觀光을 爲한 野史 蒐集調査에 着手(野史集 發刊豫定), 繼續中에 있는 業務와 同 圖書館 參考室에 口頭 或은 電話로 問議되어 오는 質疑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事實은 참으로 좋은 現狀이다. 以上 몇 가지 今年에 이루어진 參考業務 內容만 보더라도 公共圖書館에의 參考業務의 重要性이 漸高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今年들어 <讀書案内> <讀書相談> 등의 서비스를 해 볼려고 애쓰고 있는 몇몇 圖書館인들의 움직임은 이와 같은 業務가 그들의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높이 評價해야 할 일들이다.

### 讀書運動 및 圖書館運動

이 讀書 및 圖書館運動은 거의 中央에서 每年 春秋 圖書館週間과 讀書週間に 限해 벌리고 있는 感이 있다. 그 行事內容도 每年 비슷한것을 展開하고 있는데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要求되며 中央보다 地方의 大대의인 運動이 切實이 要望된다. 여기에 指摘할것은 <프랑카트>나 立看板 1枚 程度를 내 걸고 週間行事를 보

내고 있는 一部 公共圖書館의 態度는 곧 是正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今年度 第2回 圖書館週間行事로서 地方 某圖書館이 公共圖書館의 重要性과 新設을 피하는 內容의 宣傳物 3萬枚를 軍用<헤리콧터>를 動員 道 全域에 撒布하는 등 이 週間동안 6個劇場을 通하여 公共圖書館의 業務와 讀書의 重要性을 內容으로한 <스라이드>를 製作. 市民에게 보여 준것은 圖書館의 認識이 不足한 우리의 處地이고 보면 여러 圖書館이 함께 實施해야 할 일들이다. 圖書館에 對한 社會의 沒認識은 恨歎만으로 解決될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特記事項

1) 正司書資格取得講習會에 公共圖書館職員 18名 受講

法 規定에 따라 처음으로 正司書資格取得講習會 前半期가 10月11일부터 10月 30일까지 20日間에 걸쳐 南山圖書館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後半期講習은 66年 6月 10일부터 8日間 前記 場所에서 있을 豫定이다. 이講習은 韓國圖書館協會가 開催해온 講習中 가장 長期講習으로 公共圖書館 現職者들의 좋은 機會였다. 그런데 同講習이 司書教師 講習이 아니라 司書講習이 였으니 만큼 公共圖書館 職員이 多數 受講 하여야 했을 것인데 總 受講者 60餘名中 公共圖書館 職員은 不過 18名 이 였다. 同講習을 履修하면 圖書館法에 依據, 正司書 資格證을 文教部長官으로 부터 받게된다. 司書資格證을 받기 爲하여 이와 같은 講習會에 參加한다기보다 圖書館學의 새로운 知識을 얻기 爲하여 앞으로 많은 公共圖書館職員이 受講할수 있도록 各 公共圖書館 長이나 自治團體의 長은 힘써야 할것이다.

여기 밝혀 들것은 同講習期間中인 10月 28日에 公共圖書館 受講者 全員은 國立中央圖書館을 訪問, 서로의 紐帶를 強化 했고, 同日 南山圖書館에서 배운 懇談會에 參席하여 圖協을 母體로 <全國公共圖書館長 및 司書長 協議會>(假稱)를 設置할것을 合意, 研究機構를 두기로 하고 現在 推進委員에 依하여 그 規約이 作成中에 있다.

2) 3個館의 新築開館

今年들어 南山·大田等 2個館이 新築 移轉되었고 康津郡立圖書館이 新設開館 되었다.

南山圖書館——舊 서울市立南大門圖書館을 南山公園 入口에다 1963年 11月에 現代式鐵筋 콘크리트 5層 建物 新築工事に 着手, 1年만인 65年 1月 27日에 竣工. <서울市立 南山圖書館>으로 改名 開館 했다. 이 안에는 閱覽室 參考室 定期刊行物室 親聽覺室 製本室 個人研究室 講堂 書庫 등의

施設이 마련 되어 있는데 建物 內容은 아래와 같다.

- 總 建 坪 2,860坪
- 閱覽席數 1,490席
- 藏 書 數 67,968冊
- 閱覽方法 閉架式

前記한바 韓國初有로 新築된 밤모스 圖書館이나 그 施設과 藏書 및 有能한 職員의 確充이 時急히 要求된다.

大田市立圖書館——1965年 8月31日 大田放送局 옆에 雅淡한 3層 館舍를 짓고 落成開館.

康津郡立圖書館——全北 康津郡에서 1964年 11月7日 既成建物 改築工事に 着手 1965年 1月12일에 竣工 開館했다.

- 總 建 坪 120坪
- 閱覽席數 96席
- 藏 書 數 2,630冊
- 閱覽方法 開架式

3) 建議事項에 對한 當局의 見解回信.

建議事項을 當局에 내는것이 하나의 年中行事 처럼 되어 속스럽다. 每年 거의 비슷한 內容을 定期總會나 公共圖書館大會에서 採擇 建議하나 申通한 일은 하나도 없고 이루어 지는 일 또한 없다. <소귀에 經읽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今年度 第4回 全國公共圖書館大會에서 採擇 關係當局에 提出했던 建議事項 答辯(7月 1日 字 回翰)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이 別成果가 없었다.

建議事項에 對한 答辯要旨

建議 및 解決事項	答 辯
公共圖書館의 所屬 建議1. 廳을 一元化해 주시길 바람	內務當局과 折衷中,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음
文教部에 圖書館行 建議2. 政을 專擔하는 部署를 마련해 주실것	新設不司能
地方公共圖書館에 建議3. 所要되는 財源을 確保할수 있도록措 置要案	7月 1日 回翰에 明示 되어있지 않음

4) 全國公共圖書館大會 盛學.

第4回 全國公共圖書館大會가 4月 21日 부터 22日까지 2日間に 걸쳐 釜山市立圖書館에서 約60餘名の 全國公共圖書館人들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을 이루었다. 發表主題가 例年 大會時와 같이 거의 實際業務와는 距離가 먼 推想的인 問題를 다룬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앞

으로는 實務를 통한 問題點을 研究發表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

發表者도 좀더 깊은 研究를 해야 할것으로 지금까지의 大會目的이 建議文 採擇과 評議를 늘어 놓기 爲한것 같은 느낌이 흠(欠)이라면 指摘 할수 있겠다.

今年度에는 지난 해에 開催되었던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가 없었던것은 그 會議의 必要性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特記 할것은 一部 地方 圖書館에서 例年에 없었던 古書蒐集 運動을 벌려 古書를 蒐集했고 外國 圖書館과의 姉妹結緣을 맺기 爲하여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9月 公共圖書館界에서는 처음으로 崔 南山圖書館長이 日本 公共圖書館界를 20日間 視察하고 돌아 온 것이다. 앞으로 韓國 公共圖書館 發展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期待된다.

1965年 總決算

그레도 公共圖書館界의 1965年은 뭔가 새로운 氣風이 스며 들기 始作한것 같은 느낌이 있다.

2,860坪의 5層 南山圖書館이 南山 中턱에 그 威容을 나타냈고 그외에 몇個 圖書館이 新築·新設되었다. 여기에 教育廳의 결 방살이를 해 오던 大邱市立圖書館을 新築하기 爲하여 各界各層에서 誠金이 遡至하고 있다는 現地 消息이다. 그리고 前記 한바 印刷 카드를 製作 配付 하므로서 分類·編目에 浪費하는 人力을 奉仕活動에 돌려 보려는 움직임은 設或 그것이 實行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앞날이 밝음은 넉넉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國立中央圖書館에 <인포메이션·데스크>가 設置되어 市民 生活속에 公共圖書館이 파고 들어가 生活에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되었다는 事實은 質的으로 一步前進한 큰 收穫이라 하겠다. 以上 今年度의 公共圖書館界는 向上과 前進를 爲해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수 있었다.

他館種의 發展은 이미 自體整備 段階에 들어가 高度의 奉仕活動을 試圖 할려고 한다. 그러나 公共圖書館은 이제 開店休業 狀態를 벗어 났다고 해서 잘못된 表現이 아닐줄 안다. 來年에도 그 後年에도 南山圖書館과 같은 巨大한 公共圖書館이 地方 여러곳에 繼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낸다.

그리고 來년에는 무엇 보다도 法の 잘못된것을 改正·補充해야할 일이 急先務이다. 韓國의 經濟事情을 돌이켜 볼때 法の 內容을 갖이고 是非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레도 어느 程度는 法の 뒷바침이 있어야 손에 일이 잡힐것 같으니 말이다.

圖書館法을 쳐 놓고 圖書館 制定 目的을 規定한 第1條를 보면, 어느 國家의 圖書館法이든 간에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므로서 國民의 教育和 文化發

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境遇, 뒤떨어진 教育和 文化的 向上을 爲하여 圖書館法의 早速한 制定을 爲기 爲도록 關係當局에 要請하고 애쓰고 努力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거늘 現在 우리 公共圖書館의 處地는, 子息이 없어 夢寐間에 애써 오던 父母에게 胎氣가 있어, 子息이라고 낳아 놓고보니, 뜻 밖에도 아들이긴 한데 하필이면 그 貴한 子息이 <언청이>인 境遇와 같이, 큰 期待를 갖고 기다리던 法이 이 世上에 나오기는 했으나 아들은 아들인데 病身 子息이고 보니 썩 마음이 내킬理 萬無하다.

前記한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阻害하는 그 原因을 첫째로 當局과 社會의 沒認識, 그리고 經濟的 貧困을 指摘했고 둘째로 圖書館人 스스로의 努力을 들었다.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려 일할려고 해도 諸般 與件이 열이면 열까지 모두가 相反되는 속에서 最低히 일할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有能한 公共圖書館 職員이 轉職해 가거나 좋은 자리(일할수 있는 與件이 具備된)를 찾아 大學이나 學校 或은 特殊圖書館으로 하나 하나 떨어져 나가고 있는 事實이 이를 端的으로 立證하고 있

다 하겠다.

圖書館의 3大構成要素를 資料·施設·職員이라고 한다. 아무리 圖書館의 資料와 施設이 잘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運營할 職員이 없는데 公共圖書館이 發展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對答의 強要이다. 그러나 落心할 必要는 없다. <언청이>도 手術만 하면 美男이 될수 있다. 여기에 執刀할 醫師는 바로 公共圖書館人임을 알고<언청이>法을 美男으로 만들기 爲해서 앞으로 公共圖書館人들은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來년에 制定되리 라는 文教部令(施行細則)에 期待를 걸어 본다.

끝으로 韓國의 圖書館 問題는 韓國社會의 現實의인 構造와 그 生態 속에서 찾아 建設해야 할것이기 에 된 가 今年度에 努力한 보람으로 1966年度의 發展과 向上을 다짐해 본다.

註: 計數 및 其他一部事項은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의 圖書館> 1965, 1964年版과 <도협월보>

Vol.5, No.10 에서 Vol.6, No.7까지를 參考함.

## (10面에서 繼續)

허나 적은 資料나마 가장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는 綜合目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만 強調하고 싶다.

前項에서 言及한바 있는 大學圖書館 相互의 連結體 이야기와 같이 서울市內 所在 몇몇 大學圖書館 藏書에 대한 綜合目錄 문제도 벌써 數年前에 提起되었지만 여러가지 難關으로 말미아마 成事치 못했던 것이다.

前記한 2校에 있어서의 綜合目錄은 다 같이 同校 傘下 單科大學이나 附屬機關 藏書에 대한 目錄이라는 것이 特徵인데, 차츰 綜合目錄의 必要性이 널리 認識되고 있다는 사실이 重要한 發展이라 하겠다. 그 한 例로서 全國에 散在하고 있는 여러 醫科大學에서는 各 醫大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醫學關係學術雜誌에 대한 綜合目錄을 만들 計劃이라고 한다. 이미 이의 첫걸음으로서 延世大 醫大 圖書館에서는 同圖書館所藏學術雜誌目錄을 지난 11월에 發刊한바 있고, 梨花女大에서는 오는 1月頃 作成할 豫定이며 其他의 醫大圖書館에서도 早晚間 만들 豫定이라니 얼마 안가서 훌륭한 綜合目錄

이 作成될 것이 豫見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大學圖書館界의 劃期的인 事業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五. 結 言

대체로 1965년에 이러한 重要한 일들을 中心으로 大學圖書館界의 發展相을 記述하여 보았다. 筆者는 1965年을 大學圖書館에 대하여 「새로운 轉機가 되는 해」라고 부르고 싶다. 그 理由는 이미 위에서 記述한 여러가지 일들로 짐작이 될줄 안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이 正常的인 軌道에 오르면 오를수록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司書의 任務는 무거워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뭉니 뭉니 해도 窮極的으로 보면 모든것을 움직여 나아가는 原動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圖書館人들은 圖書館人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自己 스스로 努力하여야 할것이다.